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une 2025 Issue | Vol. 37

SPECIAL POINTS OF INTEREST

- 목표치 밑도는 물가상승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뒷받침한다고 전문가들 전망 — page 1-2
- 필리핀, 한국과 공동 운항 협정 추진 — page 2-3
- 5월 국제보유액 증가세 정체...외환 및 외국인 투자 감소 영향 — page 3-4
- 페소, '더 경쟁력 있어야' — ANZ — page 4-5
- 지열 투자에 탄력 붙어 — 아시아개발은행(ADB) — page 5-6
- 임금 인상 법안은 LEDAC의 우선순위 아니다 — 에스쿠데로 — page 6

목표치 밑도는 물가상승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뒷받침한다고 전문가들 전망

June 09, 2025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목표치를 밑도는 물가상승률과 부진한 경제 성장 속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수년 만의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폐소화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BSP가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라고 필리핀은행(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밀리오 S. 네리 주니어는 말했다.

이는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15월 평균 물가상승률이 1.9%로 BSP의 목표 범위인 2.4%를 밑돈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내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Nomura 글로벌 마켓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유벤 파라쿠엘레스와 나빌라 아마니는 2025년 전체 물가상승률이 평균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PEOPLE buy face masks at a stall in Carriedo, Manila. — PHILIPPINE STAR/Ryan BALDEMOR

그들은 보고서에서 “우리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2% 수준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분기에는 1.3%로 더욱 온화해졌다가, 연말에는 다시 2% 수준으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올해 평균 물가상승률을 2.3%로 예상하고 있다.

Nomura는 “이러한 온건한 물가 전망은 마이너스 생산갭, 저유가, 그리고 (특히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공급 측면 조치 유지 등 여러 요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에밀리오 네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점도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 증가율은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전체 GDP는 6%를 밑돌고 있다.

그는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됨에 따라 향후 몇 달 동안 추가적인 회복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필리핀 경제는 1~3월 분기에 5.4% 성장하며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을 보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의 5.9% 성장에서 크게 둔화된 수치다.

China Bank 리서치는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았던 데다, 최근의 물가 상승률 보고서까지 고려하면, BSP가 6월 19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25bp(베이스스 포인트) 인하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다” 고 밝혔다.

BSP의 통화정책회의는 6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BSP는 지난 4월 25bp 기준금리 인하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재개했으며, 기준금리는 현재 5.5%다.

Nomura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BSP가 총 75bp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omura는 “물가상승률 기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국내 수요가 여전히 약한 상황에서, BSP가 점진적으로 보다 완화적인 정책 기조로 전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고 밝혔다. [Cont. page 2]

목표치 밑도는 물가상승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뒷받침한다고 전문가들 전망

[Cont. from page 1]

“우리는 BSP가 올해 추가로 75bp(베이스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해 정책금리를 중립 수준 이하인 4.75%까지 낮출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BSP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 총재는 올해 25bp(베이스스 포인트)씩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달 중 추가 25bp 인하도 “여전히 고려 대상” 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100bp의 금리를 인하해왔다.

향후 위험 요소

거시경제 지표들이 금리 인하를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BSP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유리하지만, 여전히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이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경우,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중요한 위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어 “너무 공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방향이 급변될 경우 필리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BSP가 이에 대응해 급격하고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준 정책 결정자들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으며, 지난 금요일 발표된 노동시장 보고서에 큰 폭의 무역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함을 보여주며 이러한 입장을 더욱 강화시켰다.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에 첫 금리 인하를, 12월에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China Bank 리서치는 BSP가 최근 제안된 임금 인상안과 그에 따른 물가 영향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BSP는 식품 가격 상승과 입법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안 등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상방 위험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하원은 일괄적으로 일일 최저임금을 200페소 인상하는 법안을 3차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처음으로 입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사례가 된다.

China Bank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고 덧붙였다.

경제 단체들은 해당 임금 인상안이 중소기업의 폐업, 실업 증가,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6/09/677828/below-target-inflation-supports-case-for-another-rate-cut-analysts-say/>

필리핀, 한국과 공동 운항 협정 추진

June 09, 2025 | Tyrone Jasper C. Piad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CAB)는 한국과의 제3국 공동 운항 협정을 통해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가는 승객들에게 보다 원활한 여행 옵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AB의 카르멜로 아르실라 집행이사는 지난주 인터뷰에서,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필리핀발 승객들이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하나의 항공편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편을 한 장만 구매하면 되고, 하나의 항공사와만 거래하면 됩니다,” 라고 아르실라 집행이사는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승객 입장에서는 마케팅 측면이나 편의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아르실라는 “한국과의 해당 협정은 필리핀에서 운항 중인 미국 항공사들의 상업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Cont. page 3]

필리핀, 한국과 공동 운항 협정 추진

[Cont. from page 2]

이 협정은 마닐라-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 중인 유나이티드항공의 직항편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필리핀 국영 항공사인 필리핀항공은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호놀룰루, 괌으로 가는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외국 항공사들의 진입으로 필리핀의 장거리 항공편 네트워크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마닐라-샌프란시스코 노선 외에도 샌프란시스코-나리타-세부 노선도 운항하고 있습니다.

칸타스항공은 마닐라와 브리즈번을 잇는 항공편 운항을 시작했으며, 에어프랑스도 마닐라와 파리를 연결하는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에어캐나다가 마닐라-밴쿠버 노선의 첫 취항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에어인디아가 마닐라-델리 직항편을 개설함에 따라 필리핀 여행객들은 인도로 바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마닐라-델리 노선은 필리핀인들에게 인도를 경유한 유럽행 노선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에어인디아는 런던, 버밍엄, 비엔나, 코펜하겐 등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아르실라 집행이사는 “여러 외국 항공사들이 마닐라에서의 운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의 슬롯(이착륙 시간) 제한으로 인해 모두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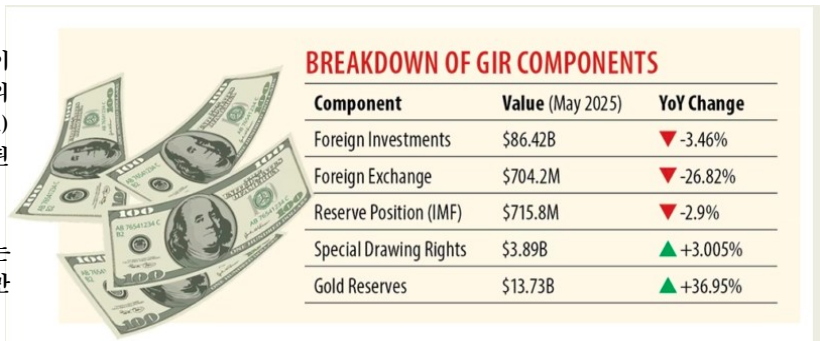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29628/ph-seeks-codesharing-agreement-with-south-korea>

5월 국제보유액 증가세 정체...외환 및 외국인 투자 감소 영향

June 07, 2025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필리핀의 총국제준비금(Gross International Reserves, GIR) 증가율이 외국인 투자 및 외환 수입 감소로 인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말 기준 필리핀의 외환보유고는 1,055억 달러로, 2024년 5월 말의 1,050억 2,000만 달러에 비해 0.42% 증가에 그쳤다.



Screenshot

2025년 4월과 비교해도 필리핀의 국제보유액(GIR) 증가율은 0.14%로, 2025년 4월의 1,053억 1,000만 달러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리잘 상업은행(RC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L. 리카포트는 “GIR은 두 달 연속 하락한 후 소폭 반등했으며, 2024년 10월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트럼프 요인이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주요 외부 위험 요인으로 부상한 시점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개발연구원(PIDS)의 선임 연구원 존 파울로 리베라 또한 필리핀의 GIR은 세계 경제 여건에 따라 “완만한 등락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베라는 폐소화의 성과, 외채 상환 시기, 외환시장 개입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조이 사르테 살세다는 2026년 4,640억 페소 규모의 코로나 시기 차입금 상환으로 인해 예산 환경이 더욱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차기 의회가 시급한 재정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nt. page 4]

5월 국제보유액 증가세 정체...외환 및 외국인 투자 감소 영향

[Cont. from page 3]

살세다 위원장은 최근 발표에서 다가오는 부채 만기가 **2026년 국가 예산에 있어 ‘주요한 재정 제약’ **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6/05/maturing-covid-debts-make-reforms-crucial/>)

“리베라는 “최근 폐소화 강제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외환보유액 축적을 둔화시킬 수 있지만, 이는 시장 심리의 개선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일부 재조정을 초래할 수 있지만, 미국 국채 시장의 깊이와 유동성, 그리고 BSP의 보수적인 준비금 운용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노출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본다” 고 덧붙였습니다.

BSP의 외환보유액은 다음과 같은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 해외 투자
- 금
- 외화
- 국제통화기금(IMF) 내 준비 포지션
- 특별인출권(SDRs)

자료에 따르면, IMF 내 준비 포지션은 2024년 5월 말 기준 7억 3,720만 달러에서 2025년 5월 말 7억 1,580만 달러로 2.9% 감소했습니다.

해외 투자는 2024년 5월 말 895억 2,000만 달러에서 2025년 5월 말 864억 2,000만 달러로 3.46% 감소했습니다.

외화 보유액은 2025년 5월 말 기준 7억 42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4년 5월 말의 9억 6,230만 달러에서 26.82%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소는 BSP의 금 보유량이 36.95% 증가하고, SDRs가 3.005% 증가한 것으로 상쇄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금 보유액은 2024년 5월 말 100억 2,000만 달러에서 2025년 5월 말 137억 3,0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SDRs는 2024년 5월 말 37억 7,000만 달러에서 2025년 5월 말 38억 9,0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BSP는 “외환보유액(GIR)의 전월 대비 증가는 국제 금 가격 상승으로 인해 BSP의 금 보유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 투자 수익과 정부의 BSP에 대한 외화 순예치금 증가도 GIR 상승에 기여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외환보유액 수준은 필리핀의 수입, 서비스 및 기본 소득 지급을 7.3개월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외부 유동성 버퍼를 제공합니다.

또한 BSP는 GIR이 잔존 만기 기준으로 단기 외채의 약 3.7배 수준을 커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6/07/gir-flat-in-may-on-declines-in-forex-foreign-investment/>

폐소, ‘더 경쟁력 있어야’ —ANZ

June 09, 2025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ANZ 리서치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진정됨에 따라 필리핀 통화당국이 조치를 취할 여지가 생겼으며, 이제 폐소화를 보다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ANZ는 “필리핀은 보다 경쟁력 있는 환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는 일정한 리스크를 수반하지만, 필리핀의 외부 수지가 개선됐고 구조적으로 낮아진 인플레이션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고 언급했다.

또한 “폐소화 약제는 수출을 증대시키고, 투자를 유치하며, 생산성 중심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폐소화는 4월 말 이후 달러 대비 55페소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ANZ는 1980년대와 1990년대 폐소화가 과대평가되었던 시기를 언급하며, 이러한 환율 수준이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Cont. page 5]

페소, '더 경쟁력 있어야' —ANZ

[Cont. from page 4]

“교역제 부문은 불균형적으로 타격을 받았으며, 수입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수출 품목(예: 조립 중심의 반도체)은 국내 부문에 의존하는 품목보다 성과가 더 좋았다”고 ANZ는 밝혔다.

이는 환율의 실질 평가절상이 수입품을 더 저렴하게 만들어 국내 산업이 급격히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수입 부문에 의존하는 전자산업도 타격을 입었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연관성이 더 깊은 전통 제조업 부문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ANZ는 또한 2004년 이후 필리핀의 실질 실효환율 격차가 이웃 국가들에 비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경쟁력의 지속적인 상실을 시사하며 보다 균형 잡힌 환율 정책의 필요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성 증가가 미약한 상황에서 페소화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점은 더욱 큰 도전 과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전통적인 통화의 공정가치 모형에 따르면, 페소화는 2019년 이후 과대평가되어 왔으며, 이는 특히 국내 부문에 의존하는 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훼손해 왔다고 밝혔다.

ANZ는 과대평가된 환율을 바로잡거나 가능한 경우 “경미하게 저평가된 환율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자 해외 송출과 송금에 기반한 소비 및 수입 중심의 성장 모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은 생산성으로의 전환을 저해한다”고 평가했다.

“실질 환율을 약화시키는 전략의 두 가지 주요 단점은 외채 상환 비용 증가와 수입 인플레이션”이라고도 설명했다.

만약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페소화 저평가를 선택할 경우,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축적해야 할 것이라고 ANZ는 지적했다.

“그렇다고 외환보유액을 더 축적하는 것이 반드시 과도한 것은 아니다. 더 높은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 발생 시 BSP가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의 외환보유액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1,000억 달러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Z는 “신흥국의 통화정책은 선진국의 매파적 통화정책 움직임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덧붙였다.

“선진국의 긴축 정책 시기에는 BSP가 국내 경기순환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종종 어렵다. 더 높은 외환보유액은 BSP가 국내 성장과 물가의 균형을 보다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6/09/678135/peso-needs-to-be-more-competitive-anz/>

지열 투자에 탄력 붙어 — 아시아개발은행(ADB)

June 10, 2025 | Brix Lelis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필리핀 정부의 지열 발전 리스크 완화(De-risking) 프로그램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필리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DB 동남아시아 지역 부국장 파빗 라마찬드란(Pavit Ramachandran)은 “지열 탐사에 관심을 두는 투자자들이 이미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지열 개발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탐사 단계에 있으며, 이는 막대한 비용과 높은 리스크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시추 작업이 반드시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발업자와 투자자들은 확실한 수익 없이 막대한 투자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Cont. page 6]



지열 투자에 탄력 붙어 — 아시아개발은행(ADB)

[Cont. from page 5]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좌초 자산(stranded assets)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이유로 리스크 완화(de-risking) 시설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라고 라마찬드란은 말했다.

지열 리스크 완화 전략을 통해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개발 전 단계에서 적격 개발업자들과 지열 시추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설은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필리핀 랜드뱅크(Land Bank of the Philippines)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6/10/2449329/geothermal-investments-gaining-steam-adb>

임금 인상 법안은 LEDAC의 우선순위 아니다 — 에스쿠데로

June 10, 2025 | Giselle Ombay | GMA Integrated News



프란시스 “치즈” 에스쿠데로 상원 의장은 월요일, 노동자의 일일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법안들이 입법·행정부 정책협의회(LEDAC)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정 임금 인상안은 상원이 승인한 100페소 인상안보다 더 높은 200페소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에스쿠데로 상원 의장은 “하원에서 또 그랬다. 회기 마지막 주에 전면적인 200페소 인상안을 통과시켰는데, LEDAC(입법·행정부 개발자문위원회)에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었다. 왜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그걸 통과시킬 거였으면 LEDAC 회의에서 먼저 언급해서 논의했어야 하지 않나? 이게 작은 사안도 아닌데 말이다. 설마 LEDAC 끝나고 나서야 생각난 건가?”

에스쿠데로 의장은 하원 법안이 6월 4일(수) 제3차 독회 및 최종 심의를 통과하면 상원이 그 사본을 받은 후 양원 협의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상원이 하원안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액을 절충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기억하시겠지만, 상원에서 전면적인 100페소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을 때, 영세 및 소규모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업종을 면제했습니다. 100페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노동단체 Partido Manggagawa와 Nagkaisa Labor Coalition은 월요일 아침 상원으로 몰려가 임금 인상 법안의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양원 협의회(bicameral committee)**의 즉각 소집을 촉구했다.

Partido Manggagawa의 사무총장 주디 미란다는 “우리는 의회가 즉시 양원 협의회를 조직해 입법된 임금 인상의 최종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고 말했다.

그녀는 “200페소의 임금 인상은 과도한 것이 아니라, 임금 회복에 대한 요구와 생산의 열매에 대한 노동자의 정당한 몫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응” 이라며 “철저한 연구는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용자들의 흑색 선전과 협박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한다” 고 덧붙였다.

하원과 상원은 서로 다른 임금 인상안의 내용을 6월 13일, 즉 제1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일 전까지 조정하고 최종안을 비준해야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준비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차기 의회에서 다시 발의되어야 한다.

말라카냥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제안된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F, GMA Integrated News

Source: <https://www.gmanetwork.com/news/topstories/nation/948849/wage-hike-bill-not-ledac-s-priority-escudero/story/>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BDO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bdo.com.ph

We find ways®

BDO Unibank is regulated by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https://www.bsp.gov.ph>
For concerns, please visit any BDO branch near you or reach us thru any of the channels listed on our website: <https://www.bdo.com.ph/consumer-assistance>.
Deposits are insured by PDIC up to P500,000 per depositor. The BDO, BDO Unibank & other BDO-related trademarks are owned by BDO Unibank, Inc. All Rights Reserved.